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해지 사유

김 지 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의 약혼자인 병으로,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병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병이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갑이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는 갑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 체결 직전 병은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위 병원 의사로부터 "백혈구, 혈소판 등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다(이하 '계약 체결 전 치료사실'이라 함). 그런데도 갑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마찬가지다(상법 제655조).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했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상법 제655조 단서)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험금지급을 다툰 이 소송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고, 만일 그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내용인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이고, 병이 진료의뢰서 발급 시점으로부터 4개월가량 지난후에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체결 이후 위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내원한 상급병원에서 요로감염증 및 급성 신우신염으로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가 위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어서, 4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계약 체결 전 치료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을 회사는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이처럼 보험계약 체결시 당시에는 그리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이라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냉정하게 돌아온 2030세대, 대선게임 '스타트'

기자 수첩

최 빛 나 〈산업부〉

탄핵 정국이 마지막까지 이어진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세대의 영향이 컸다. 그간 정치나 경제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2030세대가 이제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추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대 이하에서 33.1%, 30대에서 43.5%로 집계됐다. 한때는 50%를 넘어섰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중장년층 대비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이는 2030세대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다. 실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는 태극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4050세대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2030세대들은 SNS, 트위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도 정치·경제 관련 지적과 비판의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실제 꽤나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메시지들이 넘쳐났다.

이처럼 2030세대들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된 것은 세대 갈등에서 비롯된 사회구조 개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자리, 교육, 주거, 물가 상승 등의 불투명한 미래가 코앞에 닥친 청년들을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절박한 상황 인식으로 내몰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현실적인 정치·사회 개혁에 목소리를 결집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들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대선에서 누가 선택 받느냐가 이번 탄핵의 승자가 된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30%에 달하지만 무응답층이 38%라는 점에서 판세가 엇갈릴 수 있다. 무응답층 중 2030세대가 60%라는 점과 그 중 70%는 이 대표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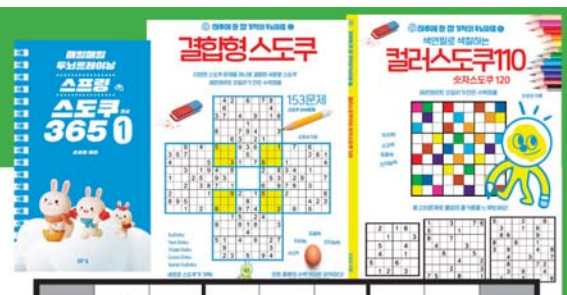
조기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았지만 판세는 유동적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무응답층을 확보하는게 이번 대선 공략의 핵심으로 보여진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간 '무반응'했던 2030세대들이 냉정하게 돌아왔다. 진짜 게임은 지금 부터다.

/vitna@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 칸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6	3
6					8			
				6	3			
	9	8		3				
		2	1		9	7		
				2		9	4	
			8	9				
			6					5
9	4							1

	8							
	6				9	2	1	8
	7		1					
	3			1		7		
			2		5			
		2		3			4	
					6		2	
5	2	8	7				3	
							9	

2	8	4	9	1	7	5	6	3
6	3	9	5	4	8	2	1	7
5	1	7	2	6	3	4	8	9
7	9	8	4	3	6	1	5	2
4	5	2	1	8	9	7	3	6
1	6	3	7	2	5	9	4	8
3	7	5	8	9	1	6	2	4
8	2	1	6	7	4	3	9	5
9	4	6	3	5	2	8	7	1

2	8	1	3	6	4	9	7	5
4	6	3	5	7	9	2	1	8
9	7	5	1	8	2	3	6	4
6	3	4	9	1	8	7	5	2
1	9	7	2	4	5	6	8	3
8	5	2	6	3	7	1	4	9
3	1	9	4	5	6	8	2	7
5	2	8	7	9	1	4	3	6
7	4	6	8	2	3	5	9	1

오늘의 운세

4월 7일 (음 3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기다려라. **48년생** 변화 속에서 기회가 온다. **60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피곤. **72년생** 굼에서 엎드려 있는 용과 봉황의 새끼를 보다. **84년생**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날아간다.

37년생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신세지만 내릴 수도 없다. **49년생** 타인의 시선에 부러움을 느낀다. **61년생** 들뜨지 말라. **73년생** 난초와 같은 어여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니 행복함. **85년생**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불평만 는다.

38년생 무의미하게 지내지 말고 외출을. **50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62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뤘던 일 찾아서 해내도록. **74년생** 벌집에 벌이 모여들 듯 재물이 번창된다. **86년생**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참아라.

39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 계속 가야 할 것. **51년생**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주관을. **63년생** 결혼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여정. **75년생**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니 나는 어이할거나. **87년생** 분수를 지키면 실수가 적어진다.

40년생 말을 소곤소곤하는 사람을 주의하자. **52년생**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나니 이 또한 좋구나. **64년생** 일이 넘치는데 손이 부족하다. **76년생** 사람의 부귀는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 **88년생** 무위도식하느니 기술이라도 배워두는 게.

41년생 행복의 여신은 한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는데. **53년생**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이 최선 몸과 마음도. **65년생** 운전할 때 언제나 양보를. **77년생** 이익을 위하여 몸을 헤치지는 말자. **89년생** 조상님의 산소를 살피고 제사 모시기.

42년생 돈이 없으니 고독한 생활의 연속이다. **54년생** 강을 건넜어도 배를 소중히. **66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즐거운 하루. **78년생** 인생은 허무한 꿈만 같지 않다. **90년생** 감정을 자제해야만 남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43년생 어느 구름에 먹구름이 끼였으니 주의. **55년생** 나이 드는 것이 서러워진다. **67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79년생** 부분적 결함이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 협력을. **91년생** 인내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도움이니.

44년생 그 아버지에 그 아들. **56년생** 영업하느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많이 즐겁다. **68년생** 계획한 지출이 생기니 마이너스다. **80년생** 뜻을 세상에 펼치지는 못했지만, 본분을 지키며 살았다. **92년생** 투자와 투기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45년생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57년생** 예의가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바르게 된다. **67년생** 다툼이 있으나 해결되어 감사한 하루임. **79년생** 돈도 재물도 많았으나 일도 많다. **91년생** 집수리는 좀 더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46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58년생** 일의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70년생** 뒤돌아서서 부러워한다. **82년생** 재물과 삶의 누릴 권리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94년생**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맑으니 기분도 상큼.

47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건 잊지 못하는 그리움. **59년생**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않도록. **71년생** 장기투자는 심사숙고해서. **83년생** 엎지른 물은 주워 담기 힘들다는 교육의 말씀이다. **95년생** 싫다면서 떠나가는 사람은 미련 두는 게 아닌데.

김상회의 四季

약은 고양이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다. 밤눈 밝기로는 고양이를 누가 당할까. 밤눈 좋기로 유명한 고양이를 두고 오히려 밤눈이 어둡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재주 좋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요리조리 머리 굴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결국은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인간들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대가들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민감하다. 원래 소탐대실의 대표적인 예는 고사에도 전하듯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나라 혜왕은 촉나라를 정복하고자 했으나 촉나라로 가는 지형이 가파르고 험해 침공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촉왕이 물욕이 많은 것에 착안하여 물질 공세를 제안한 것이다.

춘추전국시대 때뿐만 아니라 근대에 이르기까지 옥은 금에 비견되는 보석에 속했다. 먼저 집채만 한 옥괴를 캐어 운반한 다음 황소를 조각했고 그 안을 파서 돈과 비단을 잔뜩 넣고는 촉왕한테 우호의 예물로 선사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옥우소문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가 촉나라 왕에게 전해졌고, 신하들은 의심했으나 촉왕은 드디어 진나라 혜왕이 야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굴복하려 한다면서 기뻐했다.

촉나라 왕은 험한 길 때문에 선물이 늦어질까 저어하여 백성들을 동원하여 산길 운행이 수월하도록 길까지 닦아주었다. 이 때문에 혜왕은 군사를 일으켜 촉을 칠 수 있었다. 그 결과 촉나라 제후는 사로잡히고 촉나라는 패망하였다. 예물도 날아갔지만 나라까지 잃고 포로 신세가 되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중생 살이야 절체절명의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꾀로 큰 손해를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지는 듯 살아가는 것도 인생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4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5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